조현우 분데스리가행 부푼 꿈 | 대구FC도 대승적 차원서 허락할듯

국대 GK 조현우, 독일 1부 리그 마인츠 가나

〈FSV 마인츠05〉

지동원 영입 등 한국과 인연 깊은 팀
여름이적시장 앞두고 적극적 행보
조만간 대구와 본격 협상 시작할듯
소속팀 대구와 조현우 큰 틀엔 합의

축구국가대표팀 골키퍼 조현우(대구FC)의 '해외 진출' 꿈이 현실로 바뀌어 간다. 유력한 행선지는 독일 분데스리가 FSV 마인츠05다. 원 소속구단인 대구와도 큰 틀에서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동아DB

2018러시아월드컵을 뜨겁게 달군 태극전사의 큰 꿈이 마침내 이뤄지는 분위기다. 축구국가대표팀 골키퍼 조현우(28·대구FC)의 차기 행선지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나고 있다. 독일 분데스리가의 FSV 마인츠05다.

축구계 복수의 소식통은 17일 "조현우가 여름 선수이적시장을 통해 유럽으로 건너갈 것 같다. 마인츠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K리그 사정을 잘 아는 축구인도 "대구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조현우의 독일 진출을 허락할 계획이다. 구단-선수 측 입장도 거의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대구와 조현우는 큰 틀에서 합의를 마쳤다. 분데스리가는 바이에른 뮌헨과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등 일부 빅클럽을 제외하면 전력 수급시 조건이 풍성하지 않다. 대구에도 많은 이적료를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연봉과 보너스 등 금전 옵션도 높지 않다.

그러나 조현우는 조별리그 3경기에 출격해 놀라운 선방 쇼를 펼친 지난해 러시아월드컵 직후부터 해외 진출을 바랐고, 대구도 아시아권이 아닌 유럽이라면 기대와 실제 가치만큼 액수가 아니더라도 이적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다.

그 사이 조현우의 신분도 자유로워졌다. 손흥민(27·토트넘 홋스퍼), 황의조(27·감바 오사카) 등과 와일드카드(24세 이상) 자격으로 출전한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AG)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해외 진출의 가장 큰 걸림돌인 병역 의무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물론 유럽의 진입장벽은 까다롭다. 최후방을 지키며 동료들의 움직임 전체를 컨트롤해야 하는 특수 포지션인 골키퍼는 더 어렵다. 언어 능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조현우의 수많은 선방에 번번이 득점 찬스를 놓쳤고, 끝내 0-2 패배와 함께 16강 진출에 실패한 독일은 한국인 수문장을 잊지 않고 있었다. 여러 팀들이 물망에 오른 가운데 최근 마인츠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구는 세부 조건을 놓고 본격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시즌 중인 겨울 이적시장에서는 골키퍼 보강이 1순위가 아니지만 새 시즌을 대비해야 할 여름은 다르다. 모든 포지션을 놓고 고민해야 한다. 특히 2018~2019시즌을 12위(12승7무15패·승점 43)로 마친 마인츠는 한국축구와 유독 인연이 깊다. 올해 초 한국축구의 미래로 평가받는 정우영(20·바이에른 뮌헨)에게 관심을 보였고, 지난달에는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뛴 공격수 지동원(28)을 계약기간 3년에 영입했다. 2014년 1월부터 이듬해 여름까지 미드필더 구자철(30·아우크스부르크)이 몸담기도 했다.

2013년 대구 유니폼을 입고 K리그에서 7번째 시즌을 보내는 조현우는 통산 188경기에서 227실점을 했다. A매치는 11일 이란 평가전까지 12경기(10실점)를 소화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콤팩트 뉴스

추신수 12호 홈런 포함 2안타·2득점

텍사스 레인저스 추신수가 시즌 12호 홈런을 터트렸다. 17일(한국시간)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그레이트 아메리칸볼파크에서 열린 신시내티 레즈와의 원정 경기에 2번 좌익수로 선발 출장한 추신수는 1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소니 그레이의 초구 투심 패스트볼을 받아쳐 중월 솔로 홈런을 터트렸다. 1-3으로 뒤진 3회 자신의 두 번째 타석에선 안타를 추가했고, 헌터 펜스의 투런 홈런 때 득점에 성공했다. 5일 볼티모어 오리올스전에서 11호 홈런으로 메이저리그 통산 200홈런을 달성했던 그는 12일 만에 아치를 그려내며 4타수 2안타 1타점 2득점을 기록했다. 이날 시즌 30타점, 50득점 째를 나란히 달성한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84로 올랐다.

대한언론인회 '올림픽 공동유치…' 포럼

대한언론인회(회장 이병대)는 19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2032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의미와 언론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유자효 대한언론인회 편집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될 포럼에서는 박인규 대한체육회 국제본부장이 '2032올림픽 서울·평양 공동 유치현황 및 전망'을 브리핑하고, 이재호 대한언론인회 편집위원(전 동아일보 논설실장)이 '서울·평양 공동 개최와 한반도 미래'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다. 이 밖에 정의철 상지대 미디어영상광고학부 교수, 유상건 상명대 스포츠ICT융합학과 교수, 손환 중앙대 체육교육과 교수 등이 다양한 주제로 발제를 하고, 이어 종합토론이 펼쳐진다.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1 라바리니 향한 기대 2 주력 자원 한계 3 해결사의 필요성

〈한국 여자배구대표팀 감독〉

한국 배구가 VNL 통해 확인한 것들

주포들 공백에 4주차까지 1승 11패
외인감독 기대감·문제점 발견 소득

한국여자배구 '라바리니 호'의 힘든 원정이 모두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18일부터 충남 보령에서 벌어지는 VNL(발리볼네이션스리그) 5주차 3경기뿐이다.

외국인 감독 스테파노 라바리니가 브라질리그를 마치고 팀에 합류해 고작 일주일만 훈련하고 떠난 원정인데다 많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져 좋은 성적을 기대하지는 않았다. 4주차까지 12경기를 치러 1승11패로 최하위다. 선수들만 혹사당하는 무리한 일정에 고생도 많았다. 몇몇 경기장은 시설도 엉망이었다. 4주차 이탈리아 대회 때는 경기장에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았다.

어린 선수들에게 국제대회 경험을 쌓게 한 것 외에 큰 성과는 없었지만 그나마 확인한 것은 몇 가지 있다. 첫째 우리 팬들의 인내심과 새 대표팀을 향한 기대감이다. 연패를 거듭하며 최하위를 달리지만 아직 라바리니 감독의 지도능력을 비난하는 말은 크게 들리지 않는다. 새 외국인감독에게 그만큼 뭔가를 기대하고 패배 속에서도 좋은 변화가 있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대표팀은 대회기간 동안에도 경기 당일 체력담당 코치가 정한 메뉴를 소화하는 등 이번 대회를 당장의 경기력보다는 올림픽 본선진출을 위한 과정으로 준비했다.

둘째 대한민국 여자배구 자원의 한계를 확인했다. 공교롭게도 지난 시즌 V리그에서 득점부분에서 톱10에 들었던 토종선수 4명(2위 흥국생명 이재영, 4위 도로공사 박정아, 7위 현대건설 양효진, 8위 GS칼텍스 이소영)이 부상으로 이번 엔트리에서 빠졌다. 우리는 몇몇 에이스급이 빠지면 대표팀 전력이 뚝 떨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라바리니 감독이 어떤 해결책을 마련할지 궁금했는데 아직 답은 나오지 않았다. 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셋째 OPP(아포짓 스파이커)와 해결사의 필요성이다. 우리는 하이볼을 처리해줄 대포의 화력이 상대와 비교하면 약했다. V리그가 외국인선수를 도입하면서 생긴 부작용이다. 2010년 런던올림픽 때 헌신했던 황연주(현대건설) 이후 대표팀의 공격을 이끌 대포를 키워내지도 못했다. 김연경(엑자시바시)도 안타깝지만 2012년 런던올림픽을 정점으로 차츰 파괴력은 떨어지는 추세다. 누구도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새로운 배구를 찾아야하지만 그러기에는 시간과 사람이 너무 모자랐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sports2i 스포츠투아이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 결과

프로야구 기록실 〈17일〉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타율	평균자책점	홈승률	득점	실점	홈런	도루	실책
1	SK	71	47	23	1	0.671	-	3승	0.263	3.45	0.611	328	270	61	55	44
2	두산	72	45	27	0	0.625	3.0	1승	0.276	3.30	0.658	364	267	45	49	42
3	LG	70	40	29	1	0.580	6.5	1패	0.258	3.11	0.656	287	269	40	45	48
4	키움	73	41	32	0	0.562	7.5	3승	0.280	4.20	0.611	399	325	53	54	48
5	NC	70	36	34	0	0.514	11.0	3패	0.282	4.14	0.568	335	324	69	34	56
6	KT	72	31	41	0	0.431	17.0	2승	0.271	4.94	0.588	313	383	48	51	61
7	삼성	70	30	40	0	0.429	17.0	2패	0.266	4.26	0.529	318	333	60	55	55
8	한화	70	29	41	0	0.414	18.0	5패	0.249	4.66	0.545	308	343	48	61	49
9	KIA	70	28	41	1	0.406	18.5	2패	0.267	4.95	0.472	309	369	39	44	42
10	롯데	70	25	44	1	0.362	21.5	2승	0.260	5.40	0.472	328	406	43	37	57

•Before & After 7-Game

팀	9일	11화	12수	13목	14금	15토	16일	18화	19수	20목	21금	22토	23일	25화
SK	삼	kt	kt	kt	NC	NC	NC	K	K	K	*두	*두	*두	LG
두산	키	한	한	한	LG	LG	LG	*NC	*NC	*NC	S	S	S	삼
한화	LG	두	두	두	키	키	키	*롯	*롯	*롯	*삼	*삼	*삼	NC
키움	두	NC	NC	NC	한	한	한	*kt	*kt	*kt	롯	롯	롯	*K
KIA	NC	삼	삼	삼	☂	롯	롯	*S	*S	*S	LG	LG	LG	키
삼성	S	K	K	K	kt	kt	kt	*LG	*LG	*LG	한	한	한	*두
롯데	kt	LG	LG	LG	☂	K	K	한	한	한	*키	*키	*키	*kt
LG	한	롯	롯	롯	두	두	두	삼	삼	삼	*K	*K	*K	*S
KT	롯	S	S	S	삼	삼	삼	키	키	키	*NC	*NC	*NC	롯
NC	K	키	키	키	S	S	S	두	두	두	kt	kt	kt	*한

○=승 ●=패 □=무 *=홈경기

•팀간승패-남은경기

팀	SK	두산	한화	키움	KIA	삼성	롯데	LG	KT	NC
SK	■	1-0-4	6-0-2	5-0-4	3-1-2	7-0-1	4-0-2	4-0-2	9-0-2	8-0-4
두산	11	■	6-0-5	4-0-5	7-0-2	7-0-2	5-0-0	6-0-3	4-0-5	2-0-4
한화	8	5	■	4-0-5	3-0-6	2-0-4	4-0-3	4-0-5	3-0-3	2-0-3
키움	16	16	16	■	5-0-3	5-0-4	4-0-1	5-0-4	3-0-3	5-0-4
KIA	10	7	7	8	■	6-0-3	3-0-5	0-0-4	4-0-5	2-0-6
삼성	8	7	10	7	7	■	4-0-5	1-0-3	4-0-4	7-0-1
롯데	10	11	9	11	8	7	■	4-1-7	2-0-7	3-0-6
LG	10	7	7	7	12	12	4	■	7-0-2	5-0-3
KT	5	7	10	10	7	8	7	7	■	0-0-5
NC	4	10	11	7	8	8	7	8	11	■

(승-무-패순) *팀간경기없음

•타격

순위	선수	팀	타율	경기	타수	안타	홈런	득점	타점	도루	4사	삼진	실책	득점권	OPS
1	양의지	NC	0.366	65	216	79	12	33	41	2	40	25	1	0.383	1.056
2	페르난데스	두산	0.363	72	289	105	10	47	53	0	35	25	3	0.338	0.974
3	박민우	NC	0.340	52	203	69	0	37	12	6	18	18	7	0.308	0.779
4	강백호	KT	0.336	71	280	94	8	51	37	8	37	54	2	0.297	0.901
5	고종욱	SK	0.330	67	233	77	2	44	27	15	10	45	0	0.375	0.797
6	안치홍	KIA	0.326	65	239	78	3	33	32	4	28	24	2	0.253	0.806
7	김하성	키움	0.319	68	270	86	10	61	57	15	41	48	11	0.368	0.924
8	로하스	KT	0.318	70	255	81	11	29	45	4	32	60	4	0.253	0.890
9	이정후	키움	0.315	71	298	94	5	45	30	9	27	27	1	0.277	0.818
10	김태균	한화	0.315	60	200	63	3	27	25	3	38	42	0	0.275	0.829
11	전준우	롯데	0.310	69	274	85	11	48	41	3	33	38	2	0.265	0.872
12	김현수	LG	0.310	70	268	83	5	37	38	1	36	27	0	0.333	0.830
13	샌즈	키움	0.306	73	281	86	12	49	67	0	43	57	2	0.309	0.920
14	박건우	두산	0.306	72	255	78	6	44	37	6	38	31	1	0.317	0.851
15	김민혁	KT	0.305	67	226	69	0	35	17	8	24	26	3	0.239	0.704
16	이천웅	LG	0.305	67	259	79	2	34	31	10	31	40	1	0.377	0.761
17	서건창	키움	0.303	69	261	79	0	45	24	10	31	30	4	0.323	0.756
18	채은성	LG	0.301	68	256	77	3	22	27	0	17	42	1	0.303	0.720
19	김재환	두산	0.298	72	265	79	11	44	57	1	38	63	0	0.329	0.849
19	이대호	롯데	0.298	70	265	79	9	27	57	0	36	33	0	0.329	0.836
21	이창진	KIA	0.297	65	185	55	2	29	22	5	27	36	2	0.260	0.781
22	박찬호	KIA	0.297	59	209	62	2	22	21	15	17	37	6	0.288	0.757
23	유한준	KT	0.296	71	267	79	4	28	42	2	21	35	1	0.362	0.732
24	최정	SK	0.295	68	237	70	15	39	55	0	50	49	11	0.375	0.954

※ 득점권 타율 : 주자 2루, 3루, 1·2루, 1·3루, 2·3루, 만루시 타율 OPS : 출루율 + 장타율

•평균자책점

순위	선수	팀	평균자책점	경기	이닝	실점	자책	승	패	세	안타	홈런	삼진	4사	피타율	WHIP
1	윌슨	LG	1.70	15	100.2	30	19	6	4	0	87	1	66	24	0.236	1.04
2	산체스	SK	1.87	14	86.2	21	18	10	2	0	72	1	77	20	0.225	1.05
3	루친스키	NC	1.88	14	91.0	24	19	5	3	0	66	3	66	24	0.204	0.93
4	린드블럼	두산	2.02	15	98.0	24	22	10	1	0	79	6	92	21	0.215	0.98
5	켈리	LG	2.59	15	93.2	39	27	6	7	0	84	5	74	28	0.240	1.13
6	김광현	SK	2.78	15	90.2	30	28	7	2	0	96	6	93	19	0.271	1.26
7	유희관	두산	3.00	14	84.0	33	28	3	5	0	91	2	35	24	0.280	1.33
8	요키시	키움	3.16	15	94.0	34	33	6	3	0	83	4	80	24	0.236	1.10
9	박종훈	SK	3.18	14	73.2	30	26	3	3	0	81	6	49	32	0.284	1.45
10	알칸타라	KT	3.44	14	96.2	38	37	5	6	0	107	7	56	14	0.282	1.21
11	차우찬	LG	3.57	13	75.2	36	30	6	2	0	78	3	59	31	0.270	1.41
12	다익손	롯데	3.59	13	72.2	32	29	3	2	0	70	8	64	20	0.249	1.21
13	이영하	두산	3.63	13	79.1	33	32	8	1	0	69	2	37	45	0.238	1.36
14	박진우	NC	3.75	15	84.0	39	35	4	6	0	85	8	53	31	0.265	1.25
15	양현종	KIA	3.84	14	84.1	38	36	6	7	0	99	4	84	17	0.296	1.36
16	채드벨	한화	3.87	15	93.0	42	40	5	6	0	102	9	68	40	0.287	1.47
17	레일리	롯데	3.92	14	85.0	43	37	2	6	0	88	7	64	32	0.267	1.38
18	서폴드	한화	4.23	15	89.1	47	42	4	7	0	98	4	64	31	0.282	1.41
19	버틀러	NC	4.27	12	71.2	41	34	3	6	0	72	5	48	27	0.257	1.35
20	김민	KT	4.30	14	83.2	44	40	4	6	0	83	8	54	40	0.259	1.45

※ 피타율 : 안타 ÷ 타수 WHIP(이닝당 출루 허용) : (안타+볼넷) ÷ 이닝

•부문별 베스트 5

홈런		타점		득점		최다안타	
① 로맥(S)	15	① 샌즈(키)	67	① 김하성(키)	61	① 페르난데스(두)	105
① 최정(S)	15	② 김재환(두)	57	② 강백호(k)	51	② 이정후(키)	94
③ 박병호(키)	13	② 김하성(키)	57	③ 샌즈(키)	49	② 강백호(k)	94
④ 샌즈(키)	12	② 이대호(롯)	57	④ 정은원(한)	48	④ 김하성(키)	86
④ 양의지(N)	12	⑤ 최정(S)	55	④ 전준우(롯)	48	④ 샌즈(키)	86
도루		**장타율**		**출루율**		**다승**	
① 고종욱(S)	15	① 양의지(N)	0.597	① 양의지(N)	0.459	① 산체스(S)	10
① 김하성(키)	15	② 페르난데스(두)	0.543	② 페르난데스(두)	0.431	① 린드블럼(두)	10
① 박찬호(K)	15	③ 최정(S)	0.540	③ 김태균(한)	0.419	③ 이영하(두)	8
① 김상수(삼)	15	④ 박병호(키)	0.532	④ 박병호(키)	0.417	④ 김광현(S)	7
⑤ 정수빈(두)	13	⑤ 샌즈(키)	0.527	⑤ 최정(S)	0.414	⑤ 장민재(한)	6
탈삼진		**세이브**		**승률**		**홀드**	
① 김광현(S)	93	① 조상우(키)	18	① 하준영(K)	1.000	① 김상수(키)	17
② 린드블럼(두)	92	① 원종현(N)	18	① 이우찬(L)	1.000	② 배재환(N)	15
③ 양현종(K)	84	③ 하재훈(S)	15	① 김택형(S)	1.000	③ 서진용(S)	13
④ 요키시(키)	80	③ 함덕주(두)	15	① 차명진(K)	1.000	④ 한현희(키)	12
⑤ 산체스(S)	77	⑤ 고우석(L)	13	① 권오준(삼)	1.000	⑤ 김태훈(S)	10

아마추어 경기결과 〈17일〉

야구 ●제 73회 황금사자기 전국 고교야구대회(목동,신월)
•1회전=휘문고 8-7 경기상고〈연장10회〉, 성남고 6-1 청원고, 배명고 8-5 마산고, 광주동성고 8-6 인천고

배드민턴 ●제 62회 전국 여름철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전남 장흥,영암)
•남자 고등부 단체전 결승전=당진정보고 3-2 전남기술과학고 •여자 고등부 단체전 결승전=영덕고 3-2 성일여고 •남자 중등부 단체전 결승전=완주중 3-1 아현중 •여자 중등부 단체전 결승전=남원주중 3-2 남일중

하키 ●2019 여자 FIH 시리즈 파이널 대회(아일랜드 밴브리지) •결승전=한국(우승) 3-1 아일랜드

아이스하키 ●2019 고교 아이스하키리그 2차리그(목동실내빙상장) •보성고 2-1 경성고, 경기고 2-0 경복고

럭비 ●제 72회 전국 종별 럭비 선수권대회(진도 전두운동장) •고등부 8강=사대부고 28-14 부천북고, 양정고 43-0 대구상원고, 부산체고 34-7 명석고, 충북고 66-26 배재고

양궁 ●2019 세계 양궁 선수권대회(네덜란드 스헤르토헨보스) •리커브 여자 개인전 결승전=리치엔잉(대만) 6-5 강채영(한국,은메달) •리커브 여자 개인전 동메달결정전=최미선(한국,동메달) 6-0 크로펜(독일) •리커브 남자 단체전 동메달결정전=한국(동메달) 5-3 네덜란드 •리커브 여자 단체전 결승전=대만 6-2 한국(은메달) •리커브 혼성팀 결승전=한국(금메달) 6-0 네덜란드

경기 예고

프로야구 〈18일〉

•2019 신한은행 MY CAR KBO리그

NC (버틀러)	〈잠실〉	두산 (이용찬)	LG (차우찬)	〈대구〉	삼성 (헤일리)
오후6시30분, MBC스포츠플러스, KNN-R			오후6시30분, SPOTV, 대구방송-R, 대구MBC-R		
SK (박종훈)	〈광주〉	KIA (양현종)	KT (전유수)	〈고척〉	키움 (이승호)
오후6시30분, SBS스포츠, 광주 CMB			오후6시30분, SPOTV2		
롯데 (레일리)	〈대전〉	한화 (김민우)			
오후6시30분, KBSN스포츠, 대전 CMB, 대전방송-R, KNN-R, 대전MBC-R					

아마추어 경기예고 〈18일〉

야구 ●제 73회 황금사자기 전국 고교야구대회(목동,신월,오전9시30분)

축구 ●제 27회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창녕스포츠파크,오전10시)

농구 ●2019 KUSF 대학농구 U-리그(광주,오후3시)
•여자부=광주대-수원대

배구 ●2019 FIVB 여자 발리볼 네이션스리그

테니스 ●제 74회 전국 학생 테니스 선수권대회(강원도 양구테니스파크)

배드민턴 ●제 62회 전국 여름철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전남 장흥,영암,오전9시)

골프 ●2019 KLPGA 그랜드 삼대인 점프투어 8차전(그랜드,오전6시)

하키 ●2019 남자 FIH 시리즈 파이널 대회(프랑스)

아이스하키 ●2019 고교 아이스하키리그 2차리그(목동실내빙상장) •보성고-중동고(오후12시), 광성고-경성고(오후3시)

정구 ●2019 전국 정구 종별 선수권대회(충북 음성)

복싱 ●2019년 전국 종별 복싱 선수권대회(청양군민체육관,오후3시)

양궁 ●제 30회 한국실업양궁연맹회장기 양궁대회(충북 보은,오전9시)